

◀기쁜 우리 날들▶

●아들아! 이런 여자와 결혼하지마라●

아침에 잠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지마라  
아침에 게으른 사람은 분명히 낮에도 게으르다

조그만 일에 대드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어처구니 없는 일에 헤어질 수도 있다.

물건을 집어 던지는 여자와 결혼하지마라.  
나중에는 가족을 버릴 수도 있다.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여자와 결혼하지마라.

부모에게조차 그렇다면 너까지 만만하게 생각하고 대들 수 있다. 효성은 시대와 상관없이 훌륭한 인품이다.

고집 센 여자와 결혼 하지마라  
화병에 쓰러질 수 있다.

너무 여자가 바라는 대로 하지 말아라.  
너의 삶이 끌려다니는 신세밖에 되지 않는다

긴가민가하는 여자와 결혼 하지마라.  
이 사람 아니라도 세상의 반은 여자다

너무 예쁜 여자만 찾지마라  
너의 자식이 어머니를 전혀 닮지 않을 수도 있다.

기회를 잡겠다고 성공한 여자를 기대 하지마라.  
분명히 너를 만만하게 보고 괴롭힐 것이다.

아들아!  
다정한 사람을 만나 결혼해라.  
네가 신경쓰지 못하는 일을 잘 챙겨주고  
하나서부터 모든지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내를 찾아라

●딸아! 이런 남자와 결혼하지마라 ●

아침 잠이 많은 남자와 결혼 하지마라  
아침에 게으른 사람이 오후에 부지런한 사람은 없다.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과 결혼 하지 마라.  
나중에는 사람을 집어 던지기도 한다.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마라.  
부모에게조차 그렇다면 너까지 오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효성은 시대와 상관없이 훌륭한 인품이다.

느린 팔자걸음을 걷는 사람을 조심해라.  
네가 벌여오고 먹여줘야 할지도 모른다.

친구들 앞에서 면박 주는 걸 재미있어 하는 사람과 결혼 하지 마라.  
터무니없는 이유로 헤어지기 쉽다.

연락을 하기 전엔 연락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사랑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온다.

긴가민가하는 사람과 결혼 하지마라.  
이 사람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사람도 헤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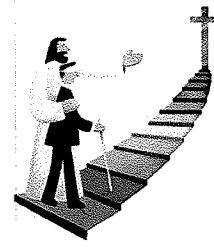
'넌 가만히 있어' 라고 자주 말하는 남자와 결혼 하지마라.  
편하게 가만히 살기보단  
그냥 가만히 살게 된다.

딸아!  
다정한 사람을 만나 결혼해라.  
너를 굶기지 않을 정도의 돈을 벌고.  
가끔 꽃을 사주기도 하고  
주머니에 따뜻한 커피를 숨겨 놓고  
아내를 기다릴 만한 남자를 찾아라.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b>갈보리교회</b> (마7:8)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영예
제8권 3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8월 6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 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7가지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바라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 첫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 때
- 둘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거나 줄어들 때
- 셋째 주님의 일대일 진지한 교제가 식어질 때
- 넷째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다룰 때
- 다섯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때
- 여섯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 일곱째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때 그랬지▶

박정희 대통령과 외국정상방한 기념우표



1966년(존슨)



1974년 (포드)



1975년(가봉의 봉고)



1979년(카터)

◀말씀따라 행하기▶

기도에는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이 필요하다.

◀인품따라 행하기▶

한 사람의 자원자는  
억지로 끌려온  
열 사람보다 낫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Calvary	다 같 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14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26(시121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찬 송 Hymn	91장	다 같 이
기 도 Pray		김교섭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10:2-3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12제자 연구(9) "제 자리를 지킨 제자 야고보"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59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8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헌금위원	차 량	안 내
30	현석호		백제성	본당:윤주야
6	김교섭		양경배	임혜자
13	박일영	예배부장	이근평	
20	이광희		이재영	현관:김교섭
27	장현중		김교섭	박일영

### ◆8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6	월초새벽기도회(1) 여성만의 Heaven(4) 연합부흥회(9-10) 구역예배(11)
13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5)
27	식사천교주일

『교회 생활』 2006년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12:30분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5시

- 1.교우소식  
<모친 병환 한국방문> 박정자 집사. 손주들을 거느린 할머니 되셨지만 친정어머니 앞에서는 어릴 적 소녀 딸로 돌아갑니다.
- 2.모임. \*3여선교회(1958년생 ~ 1961년생). <일시> 12일(토) 낮12시  
<장소> 임숙경 집사 자택 ☎479-6876. 31 Nimstedt Ave. Albany  
\*5여선교회(1966년생 ~ ) <일시> 10일(목) 오전 11:00  
<장소> 강은미 집사 자택 ☎415-0657. 19 Kittiwake Dr. Albany  
\*5남선교회(1962년생 ~ ) <일시> 11일(금) 저녁 7:30  
<장소> 최장한 성도 자택 ☎482-4120. 31/120 Beach Haven Rd. Beach Haven
- 3.장신동문교회 & 미주한인장로회 남태평양노회 연합부흥회  
\*금주 수요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일시> 8월9일(수)-10일(목) 저녁 7:30분  
<장소>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장소> 갈보리교회당  
\*<목회자세미나> 8일(화) 저녁7:30 (주님의교회)  
\*풍성한 말씀의 깊이도 있고 건강한 믿음을 미혹하는 이단연구로는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알고보니 우리교회에서 청년 두명이 최 목사님 계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더군요. 반가운 만남일 겁니다.
- 4.정기구역예배. <일시> 금요일(11일). 저녁 7:30
- 5.성전건축위원. 예배 후 성전건축위원회 모입니다. \*위원장:이광희  
\*위원:<봉사> 이금선 <기획> 경덕현 <행사> 박병민.백제성 <재정> 김영길
- 6.금주 새벽기도회(금요일)는 부흥회 관계로 쉬겠습니다.

### ◀착한 시인▶ 청포도 - 이육사 -

내 고장 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절이 주절이 열리고  
면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淸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점통, 더위, 열대야, 폭염, 퍼서....이젠 점점 생소해지는 말들입니다. 요즘 고국은 이런 단어가 모두 함께 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중엔 말복도 들어 있다네요. 말복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름더위가 있어 여름과실들이 튼실해지는 것 아닐까요?  
너무 덥고 너무 추워 생존해내야 했던 우리들, 적당히 덥고 추운 여기 이네들은 모를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인한지...